



전남 정치권 의대 신설 요구

여·야 4당 전남도당위원장들과 전남도의원들이 28일 오후 전남도의회에서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대 신설 확정과 정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립의대 유치, 30년 숙원’ 전남 범도민 함께 나선다

전남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28일 무안군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식과 함께 포럼을 열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전남도민의 대표성을 가진 정책전문가·경제계·학계·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게 된다.

공동위원장은 허정 예텐병원장, 주상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장,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강윤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이 맡았다.

고문은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장, 집행위원장은 범회승 전남대학교병원 회순군립요양병원장과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위촉됐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대표로서 소속단체나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내 국립 의과대학 유치와 도민의 유치 역량 결집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포럼에서 특강을 맡은 범회승 집행위원장은 지방과 필수 의료의 살리기 위한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 북부 몬타리오주 레이크헤드드대학과 로렌시안 대학이 협력해 하나의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례를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록 지사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도내 의대 설립 비전을 직접 발표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 유치에 앞장서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영화 ‘300’의 300인 용사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도내 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루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 실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 · 광주도약 투자로 위기극복”



강기정 시장은 28일 오전 시의회 2024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극복 전략”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강기정 시장, 광주시의회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역대급 세수감소 전년비 2019억 감소 6조9083억 편성 사실상 최고 한도액 지방채 2800억 발행...적극재정

빛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 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 감액 편성한 것이다.

강 시장은 “대우위니아그를 사태

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커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 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 원을

발행한다.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평동·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부담을 낮춘다. 지역아동센터 첫 전수조사 시행, 도로공사 우선순위 설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등 정책의 효과성도 높였다.

강 시장은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이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과

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 규모를 1000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우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특별보증 지원도 추가로 4억 원 편성했다.

강 시장은 “돌봄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글로벌 혁신사례로 광주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오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 원 편성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그는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며 “이와 함께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일상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급물살...광주시장·전남지사 “만나자”

김 지사 “무안군수 응하지 않으면 광주시장과 먼저 만날 수도”...강 시장 “만남시다” 수락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위한 시·도지사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영록 지사가 중동 방문을 하루 앞두고 28일 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협의의 위해 3자간(광주시·전남도·무안군) 대화에 무안군수가 응하지 않

으면 시·도지사부터 먼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강기정 광주시장

이 즉각 화답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 협의 등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6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두바이와 사우디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오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내달 13일로 예정된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개최 반

대에 이어 ‘김산 무안군수의 군공항 3자 협의체 참여’ 거부를 촉구한 데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대책위가 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전남도는 22개 시·군 도민들에게 도청 보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민들 또한 보고 받을 권리가 있기에 내달 13일 무안시 도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그러면서 “당일 도민과의 대화에서 무안군민들이 도지사를 향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결코 답변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최근 강기정 시장이 ‘광

주 군공항·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묶는 통합 시티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크게 환영했다.

그러면서 “무안군수가 (무안 통합 시티와 같은)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빨리 응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부터 먼저 만나서 논의하겠다”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중동 순방 이후 광주시장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 호 기자

광주 유통대전 재점화	2면
민주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3면
가계대출 금리 다시 5%대	4면

스윙 분석하여 맞춤전문

나의 스윙과 특징을 파악하고 나면 나에게 맞는 장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 맞춤 클럽 제작
- 그립&샤프트 교체
- 길이교정
- 골프채 수리 및 맞춤 전문
- 라이&로프트 조정
- 스윙 분석
- 피팅 전문

골프박사&피팅

코로나 이후 골프에 관심이 높아지며, 기존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골프를 맞춘 클럽(수제클럽)으로 눈을 돌렸고 아마추어 골퍼들은 클럽 피팅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클럽을 구매하는 것에 이질감을 가지지 않았다. 2030 세대의 새로운 골퍼들이 이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다. 수제 클럽을 구매하고 피팅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광주 피팅전문업체 골프박사 사장님 대표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든 본인에 맞는 장비 및 기구를 가지고 시합을 나가는 것이 당연하며, 골퍼는 특히 더 섬세하고 예민한 운동이라 본인에게 맞는 장비를 가지고 스윙을 한다면 최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골퍼는 특히 본인에게 잘 맞는 옷을 입혀야 재미있고 골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서경선 대표

H.P 010-3624-7875

광주시 북구 하남대로 603, 2F
 Tel. 062-523-2522 E-mail. sks0040@hanmail.net